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8. 12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기업 엔저 활용, 연구개발 투자확대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종료, 일본의 주가하락 등에 따른 엔화 매입 수요증가로 강세
- 장기금리 : 엔화 강세, 주가 폭락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하락세(국채가격 상승)

구분	8.5(월)	8.6(화)	8.7(수)	8.8(목)	8.9(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9.08	98.00	97.35	96.72	96.60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37.17	1,135.84	1,141.60	1,157.94	1,151.25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4,258.04	14,401.06	13,824.92	13,605.56	13,615.19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770	0.780	0.750	0.755	0.75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6월 수출은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전월보다 축소
*대한국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한국 무역수지흑자는 확대
- 2013년 6월 경상수지는 무역·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확대되어 흑자폭이 축소
- 2013년 6월 실업율은 3.9%로 4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			-	-	-	-
수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
수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
직접투자(억달러)	(1,223)	226			-	-	-	-
對한국 투자	(40)	7.5			-	-	-	-
소비자물가(전기비상승율,%)	▲0.2(0.0)	▲0.3	0.1	0.3	0.3	0.2	0.0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
엔화 환율	對미달러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환율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아베노믹스로는 강해질 수 없는 일본경제』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8월3일
*출처:http://www.murc.jp/thinktank/rc/quarterly/quarterly_detail/201303_136/
- 『2013년판 JETRO 세계무역투자보고 : 국제비즈니스를 통한 일본부흥』 JETRO, 8월9일
*출처:<http://www.jetro.go.jp/world/gtir/2013/>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기업 엔저 활용,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엔저로 연구개발투자 활발

- 엔저에 의한 경영실적 회복으로 일본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
 -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닛케이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주요 261개사중 24%에 해당하는 63개사가 작년도에 비해 2자리대의 증가율을 보임과 동시에, 전체 조사대상 기업들의 증가율도 5.4%로 작년도의 4.3%를 상회
 - 투자액 순위 3위 이내 기업들 모두 자동차업체로서, 차세대 에코카의 주역으로 기대되는 연료전지차 개발에 주력
 - 주력하고 있는 연구테마는 에너지절약기술이 50.2%, 신에너지기술이 44.4%로, 전기·IT·기계뿐만 아니라, 소재·건설·토목 등의 업종에서 절반 이상이 에너지절약기술을 중시

□ 자동차, 연료전지차 개발에 주력

- 261개사의 연구개발투자 총액은 11조 3,806억 달러로 4년 연속 증가
 - 1위인 도요타자동차가 11.3% 증가한 9,000억엔
 - 대당 1억 엔이었던 가격을 대폭 인하한 신형 연료전지차를 이르면 2015년에 발매할 계획으로 비용절감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2위인 혼다는 지난 7월 제휴한 미국 GM사와 연료전지차의 핵심기술을 개발
 - 연비성능이 높은 하이브리드(HV)에 탑재하는 신형 모터개발에 주력

□ 기계,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에 주력

- 자동차와 함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이 높은 기계업계도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에 주력
 - 23%의 대폭적인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미쯔비시중공업은 700억엔을 투자할 계획으로 고효율의 발전소용 가스터빈, 연료전지, 해상풍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에코카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업체들은 소재·부품을 제공하는 소재업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쯔비시케미컬이 자동차 내장재용 식물계통플라스틱을 프랑스 자동차업체와 2014년 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 중
 - 도레이도 탄소섬유를 자동차 등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에 착수

□ 전기·IT, 히타치와 도시바가 주도

- 전기·IT분야에서는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히타치제작소와 도시바가 크게 증가

- 히타치는 수처리, 철도, 축전지 도시바는 휴대정보기기용 플래쉬메모리와 차세대송전망 등의 연구에 주력
- 가전업체인 파나소닉과 소니의 연구개발투자는 감소했으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축전지 등 성장잠재력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 신흥국 중심의 해외연구개발 거점 강화

- 일본기업들은 신흥국시장을 겨냥하여 수요기업들이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
 - 해외 연구협력파트너로서 수요기업을 중시하는 기업이 16.9%인데 업종별로는 소재 관련 기업이 34.6%를 비롯한 전기·IT 및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 많음
 - 향후 해외거점을 증가시키겠다는 기업들도 22%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제품개발의 가속화와 신규진입을 겨냥
 - 해외 협력파트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사에 없는 연구테마가 가장 많은 43.5%, 신제품개발의 가속화가 39.3%, 신규분야 참여가 35.5%로 모두 국내 연구소를 혁신기술의 창출거점으로 설정하는 한편, 아시아 및 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추진
- 닛산자동차는 브라질의 개발거점을 2014년 가동예정인 신규공장 오픈에 맞추어 확충
 - 현지생산차량의 개발과 부품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한편, 인도에 있는 르노와 공동 설립한 개발거점도 증강할 계획
- 히타치제작소는 금융시스템 및 철도 등 신흥국들이 안고 있는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추진
 -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처리, 교통망, 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저비용으로 관리하는 기술 등을 개발
- 향후 해외연구거점을 신설·증강·확충하겠다는 기업이 22%로 작년의 14.4%를 상회
 - 전기·IT는 30%, 자동차는 34.5%, 소재가 30.8%로 연구개발투자에 적극적

□ 아시아지역 대학과의 제휴도 활발

-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대학과의 제휴도 활발
 - 제휴상대로는 중국이 75.35%로 압도적, 이어 싱가포르가 11.1%
 - 도시바의 경우, 중국에서 청화대학-도시바 에너지환경연구센터를 발족, 발전소용 증기터빈날개 등의 고성능화, 수명연장, 철도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

3 경제정책동향

□ 일본정부의 중기재정계획

- 일본정부가 8월 8일,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의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와 2020년도의 재정재건목표를 유지할 방침
 - 그러나 이 계획은 소비세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잠정적인 계획단계임
 - 각의에서 소비세증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계획을 수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재정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출삭감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
- 재정건전화 목표는 일단 유지할 방침
 - 일본정부는 명목GDP대비 기초재정수지의 적자를 2015년도에 2010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할 계획
 - 2015년도 적자반감을 위해 일반회계의 적자를 2년간 8조엔 줄이는 동시에, 신규 국채발행을 연간 43조엔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
 - 적자축소를 위한 유력한 수단인 소비세증세는 아베 총리가 경제지표 등을 주시하면서 올 가을에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는 정도에 그침
- 성장률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도 주목
 - 소비세 증세를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서 2014년도의 실질경제성장을 전망치가 1%인데 대해,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경제대책을 예상하지 않은 단계로서는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많음
 - 성장율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세수전망치도 커지기 때문에 세출삭감에 대한 노력이 안이해 지기 쉽기 때문임
- 향후 10년간을 전망한 중장기경제재정의 시산결과에 의하면, 소비세를 예정대로 인상함으로써 2015년도의 적자반감목표는 달성하게 되나, 2020년도는 명목GDP대비 2%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흑자화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됨
- 일본정부의 목표인 연평균 3%정도의 명목성장율을 달성하는 것이 시산의 전

- 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높은 성장률로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음
- 기초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정책운영은 신규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채잔고는 줄어들지 않게 됨
- 나아가 경제성장에 따라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지출도 증가, GDP대비 공채잔고도 2014년도의 191%를 정점으로 상승세가 멈추기는 하나, 2023년도까지 190%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
- 세입증액만으로 한계
 -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여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금리도 상승,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음
 - 결국 세출삭감과 증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나, 8일 결정한 재정운영 방침에는 이에 대한 판단재료가 없음
- 이번 계획에서는 일반세출 총액에 명확한 수치의 상한이 없어, 매년 1조엔 규모로 증가하는 사회보장비 등 개별 세출항목에 대해서도 전체 수준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겠다는 표현에 그침
 - 앞으로 2년간 증가하는 세수는 신규 세출에 충당할 계획
- 민간 연구기관들은 세수가 계획대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세입을 늘려 세출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4 일본기업동향

□ 소재업계의 과잉설비 조정 가속

- 일본 소재업체들의 과잉설비 폐기 가속화
 - 미쯔비시케미컬과 아사히카세이가 에틸렌 생산설비 1기를 2016년까지 중단하기로 결정
 - 철강과 석유정제 분야에서도 생산중단이 이어지고 있음
- 생산 중단 이유는 자동차업체 등 수요기업의 해외진출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외국기업들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임
 - 기업들의 경기체감도는 호전되고 있으나,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수익개선을 위한 합리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 미쯔비시케미컬과 아사히카세이의 자회사인 미쯔비시화학과 아사히카세이케미컬즈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미즈시마(水島)콤비나트의 에틸렌 생산설비 2기 중 아사히케미컬즈가 보유하고 있는 1기를 중단
 - 가동율이 80%대에 불과한 양사 설비를 1기로 집약시켜 생산능력을 연간 50만 톤으로 조정하여 절반정도 감축
 - 가동율을 높임으로써 양사 합쳐 연간 100억 엔의 비용절감효과를 예상
- 철강분야에서는 고베제철소가 고로를 폐기하여 현재 820만 톤의 조강생산능력을 2017년도말까지 700만 톤으로 축소
 - 장기적으로는 내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신일철주금도 기미츠(君津)제철소의 고로 3기 중 1기를 2015년도까지 폐기할 계획
 - 일본의 인구감소 등을 배경으로 내수가 2020년대에 5,000만 톤대 전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중국 철강업체들이 설비과잉에 직면
- 석유업계도 마찬가지로, 코스모석유가 7월말 사카데(坂出)제유소를 폐쇄
 - 2014년 3월말에는 JX일광일석에너지가 무로란(室蘭)제유소에서 원유처리기능을 중지하고, 이데미츠코우산(出光興産)도 2014년 3월말에 도쿠야마德山제유소의 기능을 중지하게 됨

□ 도시바 미국 샌디스크사와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

- 도시바가 세계 최대 메모리카드제조업체인 미국 샌디스크와 공동으로 디지털 가전의 기억매체에 사용되는 반도체메모리 최첨단공장을 미에(三重)현에 건설
 - 이르면 2014년 중 양산을 개시할 예정으로 투자액은 4,000억 엔, 본격적인 증산투자는 약 2년만이며 생산능력은 20% 확대
 - 최근 일본 반도체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바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삼성전자를 추격하려 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
- 도시바는 샌디스크와의 합작기업에서 NAND형 플래쉬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신공장은 합작기업이 운영하는 미에현 부지 내에 설립되며 투자는 샌디스크와 절반씩으로 도시바의 부담은 약 2,000억 엔
 - 현재 생산능력은 직경 300밀리미터 웨이퍼 환산으로 월 45만매인데 신규투자로 월 10만매정도 확대할 예정
- 도시바는 신설공장에서 반도체의 회로선폭을 현재 19나노(나노는 10억분의 1)미터에서 16~17나노미터로 미세화한 제품을 양산하게 되는데, 매당 실리콘웨이퍼로 제조할 수 있는 반도체 개수를 늘려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코스경쟁력에서 삼성보다 우위에 선다는 계획
 - 삼성은 다수의 칩을 중첩시킨 칩단제품의 양산을 이르면 2014년에 개시할 전망이다, 삼성과 도시바가 각각 최신 기술을 투입하여 반도체의 소형화와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체제에 돌입
- NAND형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요가 급감, PC에 사용되는 DRAM과 함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도시바는 작년에 30% 감산
 - 그러나 현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으로 상황이 회복됨에 따라 미국 애플사와 중국기업들로부터 수요가 증가
 - 이 때문에 도시바는 200~300억 엔을 들여 요카이치(四日市)공장 내에 생산설비를 들여놓기로 결정
 - 중기적으로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하되 2015년도 말까지 단계적으로 투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투자기간을 연장할 계획

5 한국관련위치

□ 한일 합작으로 한국에 터보차저 생산공장 설립

- IHI(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가 자동차용 에너지절약기술의 터보차저(과급기)를 현대자동차와 공동생산하기로 함
 - 터보를 탑재함으로써 엔진출력을 보충하는 연비를 20%정도 개선할 수 있음
- 자동차업체들이 사용을 확대함에 따라 작년에 생산된 세계 신차 약 8,400만대 중 30%에 탑재
 - 향후 3년 내 1,000만개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일 합작으로 연간 100만개를 생산
- IHI는 현대자동차 계열의 부품업체와 이르면 10월 생산합작기업을 설립
 - IHI는 49%를 출자하여 터보의 설계기술 등을 제공
 - 충남 서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업단지 내에 공장을 건설, 2020년까지 신규회사에 20억 엔을 투자, 연간 100만개까지 생산능력을 확대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전략차종에 동 부품을 탑재하여 유럽 등에 수출
 - 터보를 탑재하면 엔진배기량이 적어도 부드럽게 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규제가 엄격한 유럽에서는 터보 탑재차량을 발매하는 움직임이 활발
 - 2012년 세계 터보시장은 약 2,500만개로 앞으로는 미국과 신흥국에서도 도입될 전망

□ 한중일 FTA를 통한 경제관계 강화

- 닷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영토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2회째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FTA 교섭에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음
- 특히, 한중이 FTA교섭에 적극적인데는 일본의 TPP교섭 참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 TPP교섭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한중 양국은 미일 주도로 동아시아 지역의 차세대 무역·투자 틀을 정비하고 있는데 대한 초조감도 있음

- 일본의 TPP교섭참가 효과도 있어 경제외교 분야에서는 3개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되고 있음
- 한중일이 통상교섭을 통하여 상호 필요한 관계임을 확인한 마당에 높은 수준의 협정체결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철폐로, 90%이상의 품목에 걸쳐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중은 아직 이에 신중한 자세
- 한중 양국은 2국간 FTA교섭을 추진, 일본과의 자유화에 앞서 연대를 강화할 계획
- 한중일 3개국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같은 움직임을 일본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
 - 오히려 일본은 관세철폐만이 아니고 여타 교섭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자유화를 제안하여 자유무역권으로서 한중일 FTA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
 - 이를 위해서는 투자 룰의 정비, 원산지증명 절차, 국영기업의 개혁 등 일본 주도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많음
 -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TPP와 같은 높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위한 교섭강화가 필요
- 한중일 FTA의 향방은 동아시아 광역 FTA인 RCEP의 진전 여부를 좌우
 - TPP교섭 진전을 발판으로 한중일 3개국의 FTA를 핵심으로 자유화와 룰 제정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일본의 책무라고 닛케이신문은 주장